

사상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의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

김 형 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사상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또한 유일한 무기도 사상입니다.》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은 사상을 무기로 하여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령도적정치조직이다. 사상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혁명하는 당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며 유일한 무기이다.

그런것만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혁명적당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향도하는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수 있다.

사상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의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기 위한 사업이 사상사업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되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혁명위업은 사상적으로 각성된 인민대중에 의해서만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이 사상적으로 각성하여 혁명투쟁을 일으키고 전진시켜나가자면 자신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 념원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투쟁의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는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이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힘있게 추동하는 사상은 수령에 의하여 창시되고 심화발전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 념원으로부터 그 실현의 방향과 과업, 방도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만 하면 인민대중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동해나가게 된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혁명적당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자면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의식화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당은 광범한 대중속에 들어가 사상사업을 통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의 진수와 내용, 수령의 혁명사상이 밝혀주는 혁명투쟁의 목표와 목적, 과업과 투쟁방도 등을 널리 해설 선전함으로써 광범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본성적지향과 요구는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깊이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당이 인민대중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홀시한다면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켜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불러일으킬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따라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질수 없는것은 물론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뭉친 당,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역할도 수행해나갈수 없다.

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의식화하기 위한 사상사업은 결코 경제사업을 비롯한 그 어떤 다른 사업이 대신할수 없으며 다른 모든 사업들은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사상사업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은 사상을 인민들을 의식화하기 위한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한다.

사상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의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을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이 사상사업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되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혁명위업은 조직적으로 굳게 단결된 인민대중의 힘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갈수 있다.

낡은 착취사회를 뒤집어엎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 사업은 물론이고 자연을 개조변혁하는 사업과 사람들을 자주적인 혁명사상과 고상한 정신세계를 지닌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 그리고 사람들을 정신육체적으로 병들고 썩게 하는 반동적인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도 반드시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된 인민대중의 힘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혁명투쟁에서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인민대중의 단결은 오직 하나의 유일중심, 수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쳐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숨쉬고 사고하며 하나와 같이 움직여나가는 일심단결이다.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하나로 굳게 단결시키자면 수령의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참모부로서의 당이 수령의 혁명사상을 틀어쥐고 전체 인민이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여 일심단결하도록 사상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광범한 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은 행정명령식, 강제적방법으로는 진행해나갈수 없다.

인민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 인민들의 자주적지향과 요구, 념원을 실현하자는데 있는것만큼 대중이 스스로 공감하고 자각적으로 조직적단결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민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단결시키기 위한 사업도 대중의 사상이 발동되어야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당이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수령의 두리에 굳게 단결해나가도록 하자면 그들속에 수령의 위대성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기 위한 원칙적요구들을 잘 알려주어야 하며 일심단결을 해치는 반혁명적현상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나가도록 사상투쟁과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광범한 대중이 사상적으로 각성되어 스스로 수령의 두리에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은 사상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 대신할수 없다. 이 사업은 오직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발동시키는 사상사업을 통해서만 실현되고 강화발전되어나갈수 있다.

당이 사상사업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전체 인민

을 강위력한 정치적력량으로 준비시키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힘있게 추진되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은 사상을 인민대중을 조직화하기 위한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한다.

사상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의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이 사상사업을 통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되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에 큰 힘을 넣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심화발전될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결코 모든것이 다 갖추어진 조건에서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혁명과 건설의 전진도상에는 헤아릴수없이 많은 시련과 난관 지어는 희생까지도 동반하는 도전들이 앞을 가로막아나선다.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 념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치도 전진시킬수 없으며 인민대중이 발동되지 않고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그 어떤 성과에 대해서도 기대할수 없다.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자면 그들의 무궁무진한 사상정신력을 발동시켜야 한다. 그것은 인민대중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사상정신력이 얼마나 발휘되는가에 달려있기때문이다.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이 크고 많은 애로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것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며 부닥치는 모든 도전들을 극복해야만 앞으로 전진하는것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다.

각성되고 조직화된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며 일단 인민대중이 분발하여 떨쳐나서면 점령하지 못할 요새가 없고 뚫고나가지 못할 시련과 난관이 있을수 없다.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 그들의 사상정신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킴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것이 바로 사상사업이다.

사상사업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수령의 사상과 의도,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설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옳바른 사업이다.

사람들의 사상정신력을 발동시키는 방법에는 사상사업만큼 위력한 무기가 없다.

사상사업은 인민대중이 수령의 사상과 의도, 당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높은 창의창발성과 혁명성, 희생성과 적극성을 발휘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시련과 난관이 막아서고 새로운 투쟁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언제나 사상을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발동의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야 한다.

사상이 혁명하는 당의 가장 위력하고 유일한 무기로 된다는것은 조선혁명의 력사가 확증한 철의 진리이다.

적수공권으로 시작된 조선혁명에서 유일무이한 무기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였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사상의 힘으로 동지를 얻고 무기도 해결하였으며 사상의 힘으로 제국주의강적들을 타승하고 부강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당의 력사에도 우리 혁명과 같이 첫걸음부터 자기의 확고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시작한 혁명, 사상을 위대한 투쟁과 변혁의 강력한 힘으로 전환시킨 혁명은 없다.

우리 혁명에서는 사상사업이 언제나 첫째가는 중대사로 나서고 혁명의 개척기에 벌써 사상사업의 위대한 전통이 마련되였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시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만사를 해결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혁명은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오면서도 자기의 기발에 승리만을 아로새길수 있었다.

우리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